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한국-이라크전 예상 베스트11



“장신 우성용 원톱...‘높이’로 승부”

베어백호 오늘 오후 8시 이라크와 평가전
아시안컵 사우디·바레인전 겨냥 ‘예비고사’

2007 아시안컵축구(7월7일~29일)를 앞두고 제주도에서 담금질하고 있는 베어백호 태극전사들이 강호 이라크를 상대로 첫 전력 점검에 나선다.

필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29일 오후 8시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 A매치를 치른다.

베어백호가 아시안컵 예비고사 상대로 이라크를 선택한 건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겨냥해 중동 팀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라크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4위로 한국(51위)보다 33계단이나 낮은 데다 역대 대표팀 간 전적에서도 한국이 4승9무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북방답게 2004년 아시안컵에서는 사우디에 조별 리그 탈락의 수모를 안겨줬다.

베어백 감독도 호되게 당한 적이 있다. 작년 말 도하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이라크에 0-1로 무릎을 꿇어 노메달로 짐을 싸야 했다.

대표팀은 이래저래 부담이 많다.

K-리그와 차츰 갈등 속에 지난 23일부터 어렵게 소집훈련을 시작했다가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올 비탄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리그 경기를 연기까지 하면서 훈련을 시작했는데 아직 조직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느냐는 정면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삼총사가 전력에서 이탈한 가운데 이동국(미들즈브러)마저 잔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밀었던 이천수(울산)도 목에 통증을 호소해 출전이 어려운 상태.

우루과이, 네덜란드와 최근 2차례 평가전에서 연속으로 패했던 대표팀으로서 아시안컵을 대비한

첫 평가전인 만큼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베어백 감독은 작년 K-리그 득점왕 출신인 백전노장 장신 공격수 우성용(울산)을 최전방 원톱에 올린다고 예고했다.

왼쪽에는 염기훈(전북)이나 이근호(대구), 오른쪽에는 최성국(성남)을 배치해 빠른 돌파에 이른 크로스를 배달하면 우성용이 191cm의 큰 키로 다득점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중원에는 꾸준히 호흡을 맞춰온 김두현, 김상식, 손대호까지 ‘성남 트리오’를 세울 가능성이 큰데 손대호 대신 공격 성향이 좀 강한 오장은(울산)이 나설 수도 있다.

포백(4-back) 수비진은 왼쪽부터 김동진(제니트)-김치곤(서울)-김진규(전남)-송종국(수원)이 차례로 배치될 전망이다.

수문장 자리에서는 이운재(수원)와 김용대(성남)의 주전 경쟁이 치열하지만 지난 2일 네덜란드전에 출전한 이운재가 다시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라크는 어떤 팀

FIFA 랭킹 84위... 9위

2007 아시안컵 축구 본선(7월7~29일)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이 29일 오후 8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1차 평가전 상대로 만날 이라크는 아시아에서 전통의 강호로 평가받는 팀이다.

이라크도 아시안컵 본선 진출국으로 한국으로선 본선 D조에서 맞붙을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을 겨냥해 중동 팀 대응력을 키우기에 ‘안성맞춤’인 상대다.

아시안컵 예선에서 중국과 팔레스타인, 싱가포르를 누르고 조 1위로 본선에 오른 이라크는 태국, 호주, 오만과 함께 A조에 편성돼 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국이 다소 앞선다. 이라크 성인대표팀의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84위, 아시아권에서는 9위로 한국(전체 51위, 아시아 4위)보다는 아래다.

한국은 이라크와 성인대표팀 역대 전적에서도 4승9무2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 ‘도하의 기적’을 이뤄냈던 1994 미국월드컵 최종예선(1993년)에서 2-2로 비긴 이후 14년 만의 A매치를 치르게 됐다. 올림픽팀은 1996년과 2004년 두 차례 맞붙어 한국이 모두 이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U-20 월드컵축구 소식

‘한국팀 경계대상 1호’
美 주전 스미스 부상

다음달 1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2007 대회를 앞두고 한국 청소년 축구대표팀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조별리그 첫 경기 상대인 미국의 주전 공격수 조안 스미스(20·잉글랜드 볼턴)가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28일 “스미스의 부상으로 미국의 엔트리 교체 요청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프레스턴 짐머만(19·독일 함부르크)을 대체 공격수로 등록했다. 대회 출전국은 부상 선수가 생기면 팀의 첫 경기 24시간 전까지는 FIFA 스포츠의무분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엔트리를 교체할 수 있다. 미국 대표팀은 대회 준비를 위해 뉴저지에 소집돼 마무리 훈련을 해왔는데 스미스는 지난 26일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 결국 캐나다행에 동참하지 못했다. 미국, 브라질, 폴란드와 함께 D조에 속해 미국과 다음달 1일 오전 6시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대회 첫 경기를 치르는 한국으로서는 스미스의 엔트리 제외는 반가운 일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볼튼 소속으로 현재 미국프로축구(MLS) 칼리시 유니티에 임대돼 뛰고 있는 스미스는 스피드가 뛰어난 윙 포워드 한국 대표팀의 경계 대상 1호였다.

미국의 경기 자료를 분석해온 조동현 한국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이 대회 3회 연속 출전하는 ‘축구 신동’ 프레디 아두(18·레알 솔트레이크)를 제쳐놓고 미국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스미스를 지목했을 정도다.

스미스의 부상으로 ‘리틀 태극전사’들은 조별리그 통과를 가능할 중요한 일진인 미국과 맞대결에 한층 자신감을 갖게 됐다.

울산 K-리그 첫 우승

‘전통의 명가’ 울산 현대가 ‘귀네슈호’ FC 서울을 꺾고 올해 K-리그 첫 우승 축배를 들었다.

김정남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지난 27일 마포구 상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컵 2007 결승 단판 승부에서 후반 18분 수비수 박동혁의 천군같은 헤딩 결승골로 서울을 2-1로 제압했다.

울산은 1998년 아디다스코리아컵 우승 이후 9년 만에 컵 대회 정상에 올랐다. 전체 대회로는 2005년 정규리그 챔피언에 오른 이후 1년 반 만의 우승 경험이다.

A조 1위로 4강 플레이오프에서 수원 삼성을 1-0으로 누르고 올라온 울산은 3월14일부터 시작된 컵 대회 106일 레이스에서 최후의 승자가 됐다.

/변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우즈 몸 만들기 비결’

체력훈련·러닝 등
하루 3시간씩 운동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32·미국·사진)가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를 갖게 된 비결을 미국의 남성잡지인 ‘멘스 피트니스(Men’s Fitness’) 8월호에 공개했다.

AP통신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이 잡지에 실린 ‘우즈의 몸 만들기 비결’을 보도했다. 우즈는 이 기사에서 “스탠포드대학 2학년 때인 1996년부터 트레이너 키스 클레븐과 함께 하루 3시간씩, 1주에 6일 운동을 했으며 그 결과 30파운드(약 13.6kg)의 근육이 붙었다”고 밝혔다. 우즈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함께 3마일(약 4.8km)의 전력 질주, 7마일(약 11.3km) 달리기, 스트레칭 등을 실시했다”고 운동 내용도 소개했다.

“비교적 가벼운 중량을 갖고 반복하는 것을 주로 택했다”는 우즈는 “나는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면서 다쳐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다친 이야기들을 하지만 나는 그런 느낌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사람의 몸은 언제 밀고 당겨야 할 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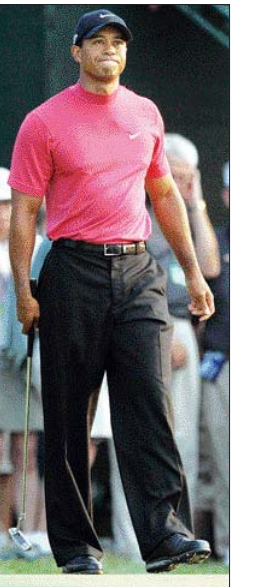
트레이너 클레븐은 “그의 지구력과 힘은 일반 골프 선수들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반복적인 운동에 대한 그의 내성은 대단했다”고 평했다.

우즈는 스탠포드대를 중퇴할 때 키가 188cm에 몸무게는 71.6kg 정도로 마른 편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 애썼지만 부친인 일 우즈는 “가족사를 보면 아마 몸무게를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서 우즈는 “아버지는 평소 ‘30세가 넘기 전에는 적정 체중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운동의 효과를 잘 보지 못하다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 2000년에서야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0년이면 우즈의 나이가 만 25세일 때다.

아직도 클레븐과 함께 자세와 몸의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우즈는 “그 때 처음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다. 감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우즈의 지금 몸무게는 84kg이다.

우즈는 “(아내인) 엘린은 임신 7개월일 때도 45분씩 심장할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했을 정도다. 내가 더 빠른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그녀는 나보다 더 오래 뛸 수 있다”면서 “엘린은 하루 종일 같은 페이스로 뛸 수도 있다. 하프마라톤을 한다면 내가 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몽준 회장, FIFA 올림픽조직위원장에 선임

정몽준(56·사진) 대한축구협회 회장 겸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이 FIFA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축구협회는 27일 밤(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FIFA 집행위원회에서 정몽준 회장이 이사 하야루(카메룬)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 남녀 축구 예선과 본선 경기를 총괄하게 될

올림픽조직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FIFA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몽준 회장은 1998년 언론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은 적이 있다.

그동안 올림픽조직위 부위원장을 맡아온 정 회장은 FIFA 집행위원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 중책을 맡게 됐다.

FIFA 올림픽조직위는 하계올림픽 남



에서도 가장 영향력있는 분과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장대높이뛰기 여왕
이신바에바의 실패

▲ 러시아의 엘레나 이신바에바가 28일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IAAF세계육상투어 골든스피크 그랑프리 육상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바를 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

/연합뉴스